

\$



○ 멕시코, 요소공장 재가동 의문

멕시코의 일부 유류 비료공장들이 개스가격을 \$ 4.00/mmBtu로 확정한 정부와 개스 소비업체들 간의 협상 이후 재 가동 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해지고 있다.

전에 텍사스주에 있는 Henry Hub에 고정시켰던 멕시코의 개스 가격은 얼마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암모니아 가격이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암모니아 가격은 오랫동안 국내 비료 생산업체들과 논쟁이 되어왔다. 전에 Petroquimicos Cosolea-caque(Pecosa) 암모니아 공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가동되었던 멕시코의 요소 공장들은 2년동안 운휴되었으며 이나라는 외국 수입품에 의존했다.

멕시코의 수입량은 2000년도에 130만톤에 이르렀는데 전체 수입물량의 약 70%는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다.

원래 생산능력이 660,000톤/년인 Chihuahua에 있는 Cargmago, Veracruz에 있는 Minatitlan, Guanajuato의 Salamanca와 같은 몇몇 소형 요소공장들은 재가동 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멕시코 언론보도는 요소 생산능력 1백만톤/년인 Pajaritos 공장들이 다시 본격 가동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나타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이 공장들이 수입 요소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며, 또한 어떤 경우 년 중 가동이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인도네시아, Aceh 지역 가스 공급중단 사태

PT Asian Aceh Fertilizer는 이 회사의 600,000톤/년 암모니아/요소 공장으로 들어오는 개스 공급이 중단된 후 3-4월 요소 계약에 관하여 불가항력을 선언하였다.

oo

가스 공급업체인 ExxonMobil Oil Indonesia Inc는 Aceh성 지역의 소요사태로 인하여 Aceh성의 South Lhoksukon 개스정, Pase 개스정 및 Arun 개스정에서 석유생산과 개스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 군은 재가동을 한 개스정의 충분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향을 미친 시설물 주변 진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인도네시아, Kujang 요소/암모니아 공장건설 발주

PT Pupuk Kujang은 서부 자바 Cikampek에 570,000톤/년 암모니아/요소 공장단지를 건설하는 계약을 일본의 Toyo Engineering Corp(TEC)와 체결하였다.

Kujang 1B 현장은 같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Kujang의 현존하는 570,000톤/년 암모니아/요소 공장을 대체 시키겠지만 에너지 원가가 30% 싸게 요소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개스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사항이다.

3억1천만달러의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이 2억5천만달러 공사 계약은 3월15일 서명되었다. 착공은 앞으로 몇달안에 이루어지고 완공은 2004년 중반에 이루어 질 것이다. Kujang은 지난해에 580,000톤의 요소를 생산하였는데 그 중에서 58,000톤은 수출되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인도, 스웨덴의 Sandvik에 Choksi 매각

스웨덴의 엔지니어링 그룹인 Sandvik은 인도의 Choksi Tube Company Ltd와의 합작회사인 Sandvik Choksi Ltd의 나머지 49%를 매입하였다. 20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으며 2000년도에 300만달라의 매출 실적을 달성한 Gujarat에 본거지를 둔 이 철강회사는 현재 Sandvik Steel Asia Pvt Ltd로 알려져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이란, Snamprogetti에 그래뉼 요소공장 건설 발주

이란의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NPC)는 Razi Petrochemical Complex의

600,000톤/년 요소 그래뉼 건설 계약을 알려지지 않은 금액으로 Snamprogetti와 체결하였다. Snamprogetto는 이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서 이란 건설회사 Sazeh Consultants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인데 이 회사는 Norsk Hydro의 그래뉼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완공은 2002년 12월 예정되어 있고, 가동은 2003년 1/4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일본, 해운업에 진출하는 Mitsui

일본의 무역회사인 Mitsui & Co는 동사의 수송 및 배송 자회사인 Mitsui OSK Lines를 통하여 암모니아 해운업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한국의 현대와 35,000m³ 냉동 암모니아/LPG 수송선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치는 아세아의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공급을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Mitsui는 이미 2개소의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한곳은 캐나다의 Kitimat에 다른 한곳은 인도네시아의 Bontang에 있다.

Mitsui는 또한 전세계를 통하여 약 2백만톤의 암모니아를 교역하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카타르, Qafco 입찰

Qafco IV 암모니아-요소 공장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이 접수되었다. 예비자격을 갖춘 입찰업체들은 Snamprogetti, Krupp Uhde, MHI 및 Kellog Brown & Root이다.

계획되고 있는 이 공장은 암모니아 660,000톤과 그래뉼 요소 105만톤의 생산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호주, 암모니아 공장 부지 확보

인도의 Oswal 그룹은 계획하고 있는 660,000톤 합작 암모니아 공장(Burrup Fertilizer)을 위하여 Hearson Cover에 70ha의 부지를 할당받았다. 현재 공장의 건설은 2000년

oooooooooooooooooooo

2/4분기에 정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작할 예정이며, 완공은 2004년말에 될 예정이다.

금년도 Oswal은 Harriet Joint Venture(HJV)와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는데 HJV는 미국에 본사를 둔 Apache Energy 및 호주의 Ampolex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orthwest 대륙붕에 있는 Harriet 가스전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콘서시엄이다. 합의에 의하여 HJV는 25년동안 연간 0.62bcm의 비율로 공급하게 될 것이다.

Burrup반도는 또한 계획 중인 Plenty River 암모니아-요소 프로젝트 현장인데 이곳으로부터 인도 동반사인 Chambal이 최근에 철수하였다.

한편 Oswal은 3,000t/d 인산반응로에 새로운 필터와 기타 장비를 설치한 후 2001년 3/4분기까지 인도에서 동사의 생산품을 20% 늘려 230만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광석 연마 능력을 50% 증가를 포함하여 다른 수정작업도 추진시키고 있다.

Oswal은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DAP 4백만톤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수준 이상인 460,000톤/년의 암모니아를 추가로 사들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유럽 EFMA와 미국 TFI, 정보공유 계약

워싱턴에 본거지를 둔 The Fertilizer Institute(TFI)와 브루셀에 본부를 둔 European Fertilizer Manufacturers Association은 대량 생산비료에 대한 각각의 시험결과를 통합함으로써 비료 독성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합작계약에 서명하였다.

TFI는 1999년에 독성시험을 시작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200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EFMA의 시험 프로그램은 1995년에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나온 정보는 북아메리카 및 유럽 비료제조업자들에게 비료제품의 안전에 대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방글라데시, Kafco 흑자 전환

방글라데시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Karnaphuli Fertilizer Co(Kafco)는 2000년 8월~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이익을 올렸다. 공장은 7년동안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운휴

\$

되었고 건설회사인 Chiyoda와 Marubeni와 함께 지난해 일괄 보상금 3천만달러를 지불한 후 마지막으로 소유회사로 넘어갔다. 생산손실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누적손실액이 8천만달러에 이르렀는데 이중 거의 절반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엔화 환율의 어려움 속에서 엔화로 차관을 갚아야 한다.

주주들은 재정구조 조정계획에 동의하였고 나머지 부채 5천만달러를 갚기 위하여 새로이 3천만달러의 자본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다. 이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앞으로 몇 주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공장은 계속 보조금에 의한 개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Kafco는 Shell이 \$ 2.90/mmBtu에 파는 개스 대금을 \$ 1.00/mmBtu로 사들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매꾸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파키스탄, 요소세 인상

파키스탄 정부는 4월1일 현재로 공히 국산 및 수입 요소에 15%의 판매세를 부과하였다. 가격 상승액은 현재 Rs 4,000/t(\$ 66/t)에 판매되는 포장된 요소에 있어서 Rs 600/t (\$ 9/t)이 될 것이다. 국내 요소 생산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기 보다는 비용에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 오랜 기간 가뭄의 영향으로 인하여 농업은 위험상태에 놓여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장이 그러한 가격상승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Nitrogen & Methanol No. 251 May-June 2001 >

○ 미국 미시시피화학 등, 정기 보수와 관련 생산조정

미국의 비료 메이커인 미시시피화학과 US 캐무 등은 4월부터 DAP의 생산에서 정기 보수의 명목으로 감산 생산에 들어갔다. 미국의 DAP 수급은 주요한 춘비의 화물 이동이 대개 임하되고 또 중국시장용 등 해외 수출도 감소함으로서 재고가 늘어 악화 상태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기 보수와 생산 조정 대책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

미국의 주요 메이커는 작년부터 DAP의 수급과 시황 대책을 위해 생산조정에 들어가고 금년 년초 이후에는 IMC 글로벌이 대형공장 설비를 중지하는 등 대량의 감산을 하고 이와 더불어 Cargill과 PCS도 생산 중지·삭감 등 강화 대책에 착수했다.

이 결과 가격도 회복의 기미를 보여 하락의 약세에서 새롭게 상승으로 바뀌어 어지간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황 회복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최근에는 다시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4월에 US 케무가 생산을 낮추는 정기보수에 들어가고, 계속하여 4월말부터 미시시피화학이 정기보수를 하면서 생산 조정에 돌입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미국의 DAP 재고는 3월말 현재로 대폭적인 생산 감소에도 관계없이 전년의 수준을 웃돌고 있고, 이 배경에는 중국 등 대외 수출의 감소가 있다고 하는데, US 케무, 미시시피화학 등의 정기보수, 생산 조정은 미국의 춘비 계절의 화물 이동도 일단락 되었고, 시기적으로 도 대형메이커의 생산조정 대책이 일정을 넘어선 것이 문제라고도 말 할 수 있다.

미국 메이커의 DAP 생산에 관해서는 일전에 수요 측면에서 휴업하고 있던 공장 설비를 재개하는 동향이 있다는 소문이 났으나 풍문에 지나지 않았고 또 다른 메이커는 조기 정기 보수에 들어간다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9 >

○ 인도네시아의 엑슨 등, 천연가스 생산 정지 해체 움직임

인도네시아의 아체 특별주에 있는 미국계 엑슨·모빌의 액화천연가스(LNG)의 생산이 재개의 방향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업계 측에 의하면 천연가스의 생산 재개가 되면 같은 지역에 입지하는 요소 메이커인 아세안·아체와 푸꾸꾸·에스칸달무다도 원료 개스를 받아 생산 중지의 해제에 들어갈 것으로 간주된다.

엑슨·모빌의 아체 특별주의 액화 천연가스의 생산 정지는 같은 주의 민족분쟁에 따른 혼란으로부터 금년 3월 중반에 돌입, 그 이후 2개월 이상이나 지속되어 이 개스를 받아 요소를 생산하는 아체와 에스칸달무다도 생산을 중지하였다.

||||||||||||||||||||||||||||||||||||||||||||||||||||||||||||

그러나 소문으로는 엑슨·모빌은 개스 생산을 재개할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재개가 실제로 될 지 어떤지가 초점이 된다. 천연개스의 생산 재개가 되면 그 규모 등에도 따르겠지만 요소 메이커인 아세안·아체 등의 생산도 원료 준비면에서부터 동요가 일어난다고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요소 수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17 >

○ 요소 국제 시황

최근의 요소 국제시황은 흑해 선적이 FOB 90\$ 이하인 80\$대 후반, 중동 제품은 같은 90\$대 후반에서 여전히 하락의 내림세를 보이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 시황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 다시 대폭 하락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일부에서는 시세 하락의 보합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소의 국제 가격은 미국의 원가고로 인해 생산이 정지되고, 이 결과 미국제품과 제3국 제품이 활발한 것 등으로 갑자기 상승하여 한때 흑해 선적 제품이 FOB 110\$대 중반이고, 중동은 130~140\$, 인도네시아 제품은 130\$ 전후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림세가 계속되어 흑해 제품이 90\$대를 하회하고, 중동 제품은 같은 95\$대 후반 수준으로 최근에는 상당한 하락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 시황이 다시 대폭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계측에서는 새로운 공급 증가는 이집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말레이지아 등 뿐이고 이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요소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수급면에서 시황의 대폭적인 하락은 없다는 설명이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17 >

○ 중국, 금년도 요소 수출량 140~200만톤 예측

중국은 금년 2001년 년간 140만톤에서 200만톤의 요소를 수출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해외와 중국측의 정보를 바탕으로 말한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년간 목표는 어느 정도의 수출에 오를 것인지内外 업계의 관심이 되고 있다.

\$

중국의 해외용 요소 수출은 작년 중반경부터 시작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인도, 스리랑카, 미국시장용 등으로 80만톤 혹은 100만톤을 수출했다고 보고되었다.

국제시황의 상향과 중국 연안부의 자급화 진행으로 잉여분 수출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년은 1~4월 기준으로 이미 40만톤의 수출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위에서 금년 중국의 요소수출은 140만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관계 기관은 200만톤 수출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거에 요소 수출국으로 발돋움한다고 판측되는 것인데 요소의 해외시장성과 시황동향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여지는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의 요소수출은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28 >

○ IFA 총회 총괄 내용

호주의 시드니에서 5월 21-24일까지 개최된 세계비료공업협회(IFA) 년차총회의 분위기는 “ 참가자는 비교적 많았던 것에 비하면 활기기 없고, 특히 국제시황에서 요소와 DAP 등이 생기가 없고 심상치 않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라는 것이다. 동 총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인상에서 이렇다할 화재가 없이 끝난 것 같다는 것이다.

IFA 시드니 총회 참석자에 의하면 참가자는 많았고 성황이었다고 말하는데 화제는 대체로 적었고 적극적인 의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참석자들 말에 의하면 최근의 비료정세에 관계되는 의견 교환에서 암모니아의 국제시황에서는 하락에 대한 반발 가능성, 요소와 DAP의 심상치 않은 정세 흐름, 안정되었다고 보고 있던 가리의 가격도 실제는 시세 하락이 내포된 것들이고 지금까지 보도되어 있던 견해가 재 인식된 모습이라고 한다.

관련 참석자들이 말하는 주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 o 암모니아의 시황 : 흑해 선적은 현재, 매진 품목으로 물량이 없으며, 이 때문에 가격은 급락에서 급등의 가능성도 있고,싼 가격에 매각하여 공급능력이 펍

oo

박 받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생산 정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o 요소의 시황 : 인도네시아 제품은 수급이 어렵다. 아시안·아체 등이 천연가스의 준비로 가동중지 하고 있고, 재개 목표는 서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푸스리는 매월 5만톤이나 커버하여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었다.
신규 메이커인 베네주엘라의 생산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이 점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격은 시세 하락속에서도 저변이 단단하다는 관측이지 상승기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각국도 서서히 자급화가 진행되고 있고 수입이 줄고 있는 것도 관련된다.
- o DAP 수급과 가격 : 미국메이커의 대폭적인 감산대책으로 시황은 간신히 커다란 가격 하락에는 제동이 걸려 있다. 그러나 미국의 춘비가 일단락되어지고, 중국 등 해외 수요가 감소하는 전망으로 보아 일부의 생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흥 호주(웨스턴·마이너)와 인도(오즈와르)의 생산도 있고, 공급 증가의 면도 있다. 호주의 신규 DAP은 동남아로 20만톤씩이나 수출이 결정되어 있다고 들린다. 이러한 점에서 DAP의 가격이 상향으로 회복되는 것은 전혀 예측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o 가리 시황 : 캐나다의 캄포텍스는 현재의 수출가격으로 가격 상승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일본용에서도 가격 상승을 명확히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공급측의 가리 수출이 중국과 브라질, 인도용 등으로 순조로운 상황이고, 일부용으로는 감소돼도 전체로서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데 공급이 여전히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캄포텍스와 러시아(우랄·가리)의 판매업무 제휴도 관련되어 있다.싼 가격 방지책으로 제동이 걸려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29 >

○ 암모니아 국제시황(1)

최근의 암모니아 국제시황은 한때의 대폭적인 앙등에서 이번에는 역으로 대폭적인 하락

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으로 C&F 150-160\$ 부근에서 다시 하락할 공산이 강해지고 있다.

제품 성격상 재고는 많지 않고 수급면에서 잉여제품이 생기면 처분으로 움직인다는 관계가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암모니아의 시황은 전에 미국의 원료개스의 가격 상승, 메이커의 원가 이하에 의한 생산 중지에 따라 미국용 수요의 증가에서 상승에 이어지는 커다란 도약으로, 한때는 C&F 260-270\$로 급등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300\$라는 계약이 성립된 가격이 나타날 것 같은 사상 최고가를 부르는 상황으로 폭등했다.

그러나 가격 양등도 이 정도까지고 미국의 원료개스 가격이 하강하여 고가에서 안정되고 중지했던 메이커도 생산을 재개하여 공급을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을 반복하면서 시황은 점차 내림세로 변해 갔다. 중도에 미국 메이커가 다시 원가이하로, 생산을 중지한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했지만 시황은 서서히 하강으로 향하고 미국 걸프도에서는 C&F 230-220 \$ 대 그리고 210-205-190 \$대로 점차 다운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이 시황은 “ 양등에서 급락이라는 설이 흘러나온 것이다 ” 그러나 이 시황은 그 후에도 다운 경향으로, 인도용에서는 C&F 230\$ 대였던 것이 200\$ 대에서 190\$ 대, 170\$대로 하락, 최근의 한국입찰에서는 C&F 150\$ 부근에서 낙찰되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C&F 300\$에서 급락하여 반 값이 된 암모니아 국제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9 >

○ 암모니아 국제시황(2)

관련 업계측이 5월 22일 말한바에 따르면 흑해(Yuzhny)선적 암모니아는 이번 6월 말 까지 매진으로 물량이 없어서, 공급 부족상태로 급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시황이 시세 하락으로 구매가 집중된 것과 가격 하락을 싫증 낸 우크라이나 메이커들이 정기보수를 시작하여 생산을 중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흑해 선적 암모니아는 유럽용으로 수만톤을 인수받은 외에 다른 거래처에서도 매입이 진행되어 그 결과 공급측에서 시황의 반발 무드로 변화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

그것이 이번에는 현실로 되어 6월까지 제품 매진으로 인해 재고량이 감소하고, 추가로 우크라이나의 생산 중지도 단숨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흑해의 암모니아 공급의 타이트함은 중동 제품에도 파급될 모양이고 중동세도 6월까지는 매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흑해와 중동의 암모니아 공급 사정의 변화가 최근 대폭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암모니아 시황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시황이 일시적으로 반발로 이어질 것인가가 초점이 되고 있다.

이는 흑해선적 암모니아 가격이 시황의 앙등 때 FOB 200\$ 전후인 고가로 뛰어 올랐으나 최근에는 반값 이하인 FOB 90-85\$ 부근으로 하락했던 것이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5. 23 >

○ 암모니아 국제시황(3)

업계측이 최근 말한바에 의하면 암모니아의 국제시황은 요즘 하락 수준에서 급속히 반등세로 바뀌고, 흑해 선적에서는 FOB 90-85\$ 목표까지 하강하고 있던 것이 100\$ 대로 반발 지금은 FOB 110\$를 돌파하여 120\$ 목표 수준까지 온 것 같다.

싼 가격에서 40\$ 전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고 이것과 평행하여 중동제품들도 상승을 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메이커가 가격 저하로 생산 중단에 들어가고, 흑해 선적이 매진으로 인한 품절 등 이유로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

하계시장이라는 계절적 원인도 얹히고 섞히어 또다시 내림세를 보일 것인가 ?

그 동향이 주목되고 있고 업계측에 따르면 러시아 제품들은 흑해의 암모니아 공급의 흐름이 회박하고, 한편 미국의 암모니아 매입 정조도 보인다고 하므로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 시황의 반락은 생각하기 어렵고 반전의 상승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암모니아 시황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줄다리기 국면으로 되어있는데, 요르단 입찰에서는 낙찰가도 급상승으로의 변화가 분명했으므로 앞으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 6. 4 >